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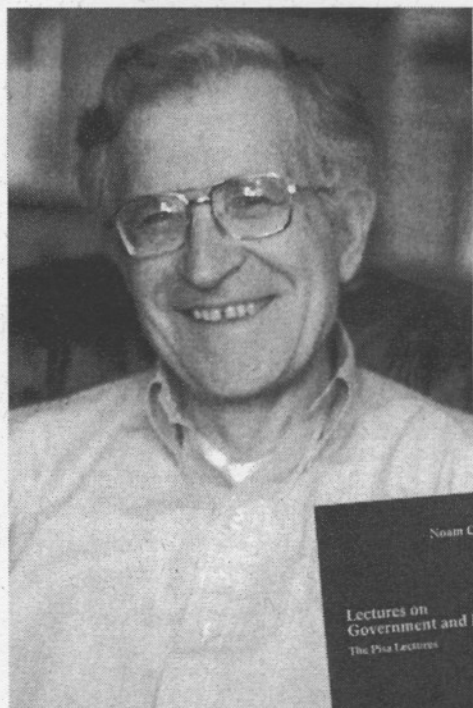
행동하는 지성 노암 촘스키의 생성문법학

노암 촘스키는 현대 지성사의 대표적 거인이다. 그는 언어학의 혁명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특히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회 엘리트들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온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이다. 로버트 바스키는 『노암 촘스키, 어느 반골의 일생』(Noam Chomsky, A Life of Dissent)에서 촘스키를 갈릴레오나 데카르트, 뉴턴 등에 견주고 있으며, 그를 생존하는 인물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인물들까지를 망라하면 마르크스, 셰익스피어, 성경, 플라톤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1928년 12월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촘스키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로 사회참여형 학자인 젤리그 해리스 교수의 지도로 195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MIT의 교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촘스키 언어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언어 습득과 관련해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탐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면 누구나 특별한 노력이나 훈련 없이 단시일 안에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언어습득이 완료된 후 인간이 발화하게 되는 언어적 표현들은 언어 습득과정에서 경험한 언어 자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므로, 모방이나 반복에 의해서는 인간의 언어습득현상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언어습득과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을 '자극의 빈곤' 혹은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라고 칭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의 상당 부분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즉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촘스키는 이렇게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언어능력을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혹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라고 칭하며, 세상의 여러 언어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 보편문법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언어능력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가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인데, 생성문법은 바로 촘스키가 창시해낸 새로운 것이다. 어떤 점에서 촘스키의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의 선천적 언어능력을 하나의 탐구영역으로 확립한 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촘스키의 언어이론은 크게 둘 혹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그의 이론을 둘로 나눈다면 1981년 발간된 『지배결속강의』(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배결속강의』 이전까지는 인간의 언어능력, 즉 보편문법에 담긴 내용을 주로 변형규칙의 목록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가정에서는 언어마다 다른

변형규칙의 목록을 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즉 한 국어의 변형규칙 체계와 영어의 변형규칙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음)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언어능력의 내용으로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각에 따라 『지배결속강의』에서는 인간의 언어능력을 ‘규칙’의 체계가 아니라 ‘원리’의 체계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언어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매개변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는 바로 이 ‘원리 및 매개변인’ 체계의 구체적 발현이 된다. 즉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이 ‘원리 및 매개변인’ 체계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



며, 이 ‘원리 및 매개변인’ 체계의 도움으로 극히 빈약한 언어 자료에의 노출만으로도 풍부한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학자들의 호응을 받게 되어, 1980년

대에는 촘스키의 이론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촘스키 이론이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는 ‘언어가 최적적으로 설계(optimally design)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촉발되었다. 엉망으로 설계된 대상에 대한 이론적 작업도 가능하므로, 이는 이론 자체의 옳고 그름과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촘스키는 인간 언어가 최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가정하고, 보편문법에는 이렇게 최적적으로 설계된 내용,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험적으로 입증된 문법 도구라 하더라도 이 최적적 설계조건에 위배된다

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수십년간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문법원리나 도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1995년에 출간된 『최소주의 프로그램』(The Minimalist Program)에서 기본적 틀을 갖추게 되며, 흔히 최소주의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원리 및 매개변인’이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러한 이론적 변화를 굳이 세번째의 이론적 시기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주의에서는 언어자료에 입각한 증거(즉, 경험적 증거)보다는 개념적 증거가 더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 때문에 촘스키의 최근 이론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지고, 또 대단히 모호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 기도 한데,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촘스키 스스로는 아직도 자신의 최근 작업을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출간된 『자연과 언어』(On Nature and Language)라는 책은 최소주의 프로그램 안에서 촘스키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를 대담 형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촘스키 언어학 및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의 핵심 뼈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사회비평가이기도 한 촘스키는 이 책에서 구약성서에서 ‘예언자’(prophet)라고 번역되는 인물들은 오늘날의 ‘지식인’(intellectual)에 상응하는 인물들이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지식인들 중 권력에 아부하던 지식인들이 후에 ‘거짓예언자’(false prophet)로 비난받았음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 중, 후에 누가 진정한 ‘예언자’로 추앙받게 되고, 또 누가 ‘거짓예언자’로 비난받게 될까? 인문학을 팔며 여기저기 그럴듯한 소리를 해대던 교수들 중 하나라도 진정한 ‘예언자’가 있거나 할까?

한 학 성 / 영어학부 교수